

"삶의 한 복판에 언제나 말이 서 있다 / 난, 말이 필요 없어 / 한 마디 말보다 절절한 눈빛으로 / 언어란 얼마나 불완전한 도구인지... / 혀 내두르다"

최승훈+박선민이 한국에 들어와 독일에서 했던 '신문-시'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한 작업의 스케치 사진을 보고 있자니 예상치 못한 웃음이 번진다. '신문-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이 웃음, 박장대소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간질이는 실소(失笑)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혀를 내두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작업 사진에서 인용한 서두의 문장들은 '말'이, 그야말로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무표정하게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는 들판을 달리는 말(馬)이 의사소통의 불완전한 도구로서의 말(言)에 발목 잡혀 있으며,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음식 맛 선전이 면대면 대화와 눈빛이 부재한 디지털 문자족의 세태 비평과 접속해 있다. 지목할 대상의 중복 혹은 동음이의어들의 병렬. 의미의 혼란을 충동질하는 말들의 난교(서로 마음이 두텁게 맞는다는 의미로 蘭交/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는 의미로 亂攪. 나는 어느 한 의미로 최승훈+박선민의 시어들을 규정할 수 없다.) 또는 논리적 사고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말의 방지턱. 나의 웃음은 내 사고의 발부리가 이 방지턱에 걸려 '빠끗'하면서 새어 나온 신음소리에 가깝다. 그러나 이 신음소리 같은 웃음은 이후 보겠지만, 더 큰 사고의 정체(停滯)를 유발하며 번진다. 이 후자의 웃음은 미셸 푸코가 보르헤스의 작품에 인용된 중국백과사전의 동물 분류를 보고 터트린 웃음과 그리 멀지 않다. 예의 중국백과사전은 동물을 "(a) 황제에 속하는 동물 (b) 향료로 처리하여 방부 보존된 동물 (c) 사육동물 (...) (j) 셀 수 없는 동물 (k) 낙타털과 같이 미세한 모필로 그려질 수 있는 동물 (...)"(Michel Foucault, 『말과 사물』, p. 11)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푸코는 이걸 보고 웃음을 터트렸지만, 중국백과사전이 제기한 그 웃음이 서구 과학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자기 "사고의 전지평을 산산이 부숴 버린"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최승훈+박선민의 시어나 중국백과사전의 동물 분류나 처음 제기하는 웃음은 '황당함', 앞서 썼듯이 말들이 뒤섞인 데서 오는 의미의 혼란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시어나 동물 분류법이 유발하는 것이 황당한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자명하다고 믿어 왔던 논리적 언어와 사고체계를 의심케 하는 파괴적인 해체의 웃음임을 깨닫는다. 말(馬)과 말(言)이 말(언어) 속에서는 동일한 기표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 그 말의 어느 조각에도 실제 대상-기표는 기입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것을 자명한 언어 체계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 이 언어체계야말로 과학의 마스크를 쓴 임의적이고 인위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문 기사를 오려 몽타주한 최승훈+박선민의 '신문-시'나 중국백과사전이 분류한 동물의 체계를, 주관적이라거나 비논리적이고 의미가 불확실하다고 조소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고 있던 논리와 합리의 사고 체계가 그 내부로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감지하게 된다. '언어의 내부는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 대상과는 조금도 유사하지 않은 기표들로 뒤얽혀 있다.' 이를 나는 최승훈+박선민이 '언어'를 모티브로 작업하는 첫 번째 동기이자 전제라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이들의 작업이 이러한 개념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굳이 이를 '미술'이라는 범주에서 다룰 이유가 없다. 최승훈+박선민의 미술이 벌써 미술사의 한 유형으로 정착된 '개념미술'을 가볍게 뛰어넘는 지점이 여기인데, 이 짝을 이뤄 공동작업을 하는 작가는 언어의 일방향적 논리성을 재고하면서 언어의 타자로 간주돼왔던 이미지가 지각되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가

언어적 독해와 상호 침투하는 지점을 미술 속에 펼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미술 속에서는 馬=말이 되는 의미의 혼란이 푸른 대지 위의 말 이미지와 '언어의 한계'를 소설화한 프랑스 작가의 인터뷰 사진으로, 혹은 그 역으로 상호 침투한다. 그 침투작용 덕분에 신문의 정보 글귀는 <시>의 풍부한 이미지로 채색되고 침묵하는 사진이미지는 언어의 울림을 획득한다. 여기서 언어와 이미지는 부채처럼 위계 없이 굴곡지며 펼쳐진다.

## 언어의 맹목과 지각의 빛

최승훈+박선민은 독일 유학 시절부터 신문 지상에 인쇄된 문장과 사진들을 몽타주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명 <시>연작이고 나는 이를 '신문-시'라 부른다. 신문의 '정보'가 최승훈+박선민의 정신이 참여한 가운데 그들의 손끝에서 <시>로 다시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신문의 한 부분, 한 구절과 이미지임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의 잡다한 정보를 담은 신문이 작품의 질료가 되어, '정신의 현상'이고 영원을 추구한다고 숭앙 받았던 예술의 내부를 해체시키고자 한 현대미술의 역사는 그리 짧지 않다. 일찍이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에 신문 조각을 붙여 지오토 이래로 완고해진 2차원 평면의 3차원 원근법적 환영(illusion)을 분쇄하고자 했다. 또 다다는 신문이나 잡지의 텍스트를 아무런 예술적 의도 없이 콜라주해서 '텅 빈 의미' 또는 유미주의 '예술을 벗어난 형식'을 실험했다. 최승훈+박선민의 <시> 작품은 입체파보다는 다다의 실험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특히 그들이 자신들의 예술 행위로 현실에 유포된 말(정보)의 열개를 폭파하고, 텍스트와 이미지, 인식과 지각의 새로운 맥락을 짜 보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맥락이란 깊이 들여다보면 앞서 썼듯이 우리가 자명하다고 믿고 있는 논리적 언어와 합리적 인식체계의 결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짜여있다. 이 작가들은 스크랩한 신문을 확대해서 잉크젯으로 프린트한 <시> 연작을 전시장만이 아니라 동네 어귀 외벽에 기념비적인 크기로 붙여 놓기도 한다. 골목에 덕지덕지 붙은 광고 전단을 뺏튀기 해 놓은 듯한 이 <시>작품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풍경을 닮은 듯하면서, 기성 정보를 사적 이미지로 논평한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읽는 말이 신문 기사임에도 한편으로는 시적이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 읽을 수 있음에도(물론 독일어 기사는 쉽게 읽지 못하겠지만) 논리적인 의미를 파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황당한 웃음을 터트린다. 그 웃음은 우리의 언어 능력이 일종의 맹목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해의 암흑 상태 또는 물이해의 상태를 작품의 이미지, 즉 신문의 글귀와 함께 몽타주 된 신문사진은 상상력 풍부한 감상으로 구출해 준다. 예컨대 우리는 "Das Paradies brennt(천국은 불타고 있다)"는 난해한 문자열 위에 실린 어느 휴양지 사진을 보며, 천국을 꿈꿀 수 있다. "삶의 한복판에 언제나 말이 서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한글 문장(도대체 어떻게 해서 도시 매면에 찌든 우리 삶의 한복판에 푸른 초원의 말이 실제적으로든 심정적으로든 항상 서 있을 수 있겠는가?)에서, 사실과는 상관없이, 잠시 동네 어귀를 떠나 그 푸른 초원 이미지의 한복판을 뛰어 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애초에 그 기사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신문 지상의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최승훈+박선민의 <시> 속에서, 우리 지각의 너른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어의 맹목이 지각의 빛을 부른다. 실제 이들은 다른 프로젝트, 즉 백열등으로 점자 텍스트를 쓴 설치작업을 통해 지각과 독해방식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 팔을 들어 올리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백열등으로 쓴 점자 텍스트는 눈으로는 읽을 수 없다. 가시적 언어의 맹목을 넘어, 촉각으로 그 점자를 더듬을 때 작품의 감상이 완성되는 구조이다. 요컨대 이 활자, 이 빛, 이 형상은 보고 읽고 만지는 행위가 위계를 가지고 분리된 활동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을, 언어의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작품으로 체득하게 한다.

이렇듯 최승훈+박선민은 우리가 여전히 완고하게 믿고 따르는 논리적 체계, 그러나 그 체계 자체가 매우 험겁거나 임의적인 체계를 해체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언어 대신 이미지를, 인식 대신 지각을 대신 들어서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서로를 침투시켜 감상자의 수용을 복합화 한다. 그 복합적인 수용이 웃음을 동반한 공감각적 사고로 이어진다면, 최승훈+박선민의 말과 이미지는 제대로 관계한 것이다.